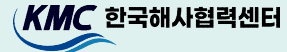


IMO 소식 & 국제해사동향



01

IMO 소식

IMO,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IMO,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출처: IMO〉

- 국제해사기구(IMO)는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전달인 5월 17일 IMO 본부에서 "안전한 수평선: 해사안전의 미래를 만드는 여성들(Safe Horizons: Women Shaping the Future of Maritime Safety)"이라는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 ▶ 저명한 선원, 해사 전문가, 해사분야 리더들이 참석한 이 심포지엄에서는 여성의 시각에서 해사안전을 재구성하고, 성평등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해사안전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구현 할지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음.
 - ▶ 아울러 해사분야 성평등과 여성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IMO 성평등상(Gender Equality Award) 첫번째 수상자로 선정된 Despina Panayiotou Theodosiou(사이프러스) 여성국제

해운무역협회(WISTA International) 전 회장에 대한 시상식도 거행되었음.

- 아르세니오 도밍게스(Arsenio Dominguez) IMO 사무총장은 “우리는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여성 교육 및 전문성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해사산업에서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고, 혁신을 이끌며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현재 해사분야 종사자 중 여성은 29%에 불과하며, 전 세계 선원 중 여성 비율은 2% 미만임. 이에 IMO는 회원국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다섯번째 목표인 ‘성평등: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 신장(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IMO 성평등상, 출처: IMO〉

김 현 중 영문에디터
kem5651@imkmc.or.kr

IMO 공지

[회의 및 행사 공지]

- (사무국) 2024년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 심포지엄 및 성평등상 시상식 (CL.4834/Add.1, '24.5.14.)
 - ▶ IMO는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제32차 총회 채택) 전날인 5월 17일 14시 30분부터 IMO 본부에서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 심포지엄 및 성평등상 시상식'을 개최함을 알림.
 - ▶ 지난 회람문서(CL.4834, '24.2.12) 이후 IMO 사무국은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ID4WIM)과 성평등상 시상식 상세 프로그램을 공유함.
- 2024년 IMO 및 WISTA 여성해사인 설문조사 안내 (CL.4842/Add.1, '24.5.17.)
 - ▶ IMO와 여성국제해운무역협회(WISTA)는 2024년 여성해사인 설문조사를 9. 2.부터 12.31.까지 진행함을 공지하고, 각 회원국에 데이터 수집 및 설문지 작성 담당자를 6. 21.까지 지정하여 회람문서 내 링크를 통해 알려줄 것을 요청함(회람문서 내 링크).
 - ▶ 이번 설문조사는 회원국, 민간기업, NGO 등의 해사부문 인력의 성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 회원국이 시행 중인 성평등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파악하여 해사산업에서 여성 참여 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됨.

[기타 공지]

- (사무국) STCW 관련 정보에 대한 새로운 GISIS 모듈 도입 (CL.4864, '24.5.15.)
 - ▶ STCW 관련 정보에 대한 새로운 GISIS 모듈은 HTW 및 MSC 결정에 따라 개발되어 2년간 시험 운영될 예정임. 해당 모듈은 STCW 관련 정보의 초기 및 후속 보고, 적합한 인력 목록, 허위 증서, 인증서 목록 및 검증 등의 항목을 포함함.
 - ▶ 사무국은 회원국 및 국제기구에 동 모듈 사용에 관한 피드백을 요청하였으며, 모듈 사용 안 내는 회람문서 첨부파일을 참조할 것(단, 각 국가의 지정된 Coordinator만 접근 가능).

02

IMO 소식

GCMD와 NYK, 바이오선박유 선박 실증을 위한 협력

(출처 : Manifold Times, '24.5.9.)

- 글로벌 해양탈탄소화센터(GCMD)와 일본 해운선사인 NYK는 6개월간 바이오선박유 선박 실증사업인 'Project LOTUS'를 착수한다고 밝힘. 이 프로젝트는 기존 선박유 VLSFO에 FAME 연료를 24% 혼합한 바이오선박유를 NYK의 자동차 운반선에 사용하여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GCMD는 MPA(싱가포르 해사항만청)와 BW Group 등의 창립 파트너로부터 1억 2천만 싱가포르 달러(약 1,210억원)를 지원 받아 2021년 8월 1일에 설립된 비영리 조직으로서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음. GCMD는 해사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탈탄소화 추진,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GCMD와 NYK 바이오선박유 선박 실증을 위한 협력 추진 〉

- FAME은 폐식용유 또는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부터 추출한 바이오연료로서, 기존 선박엔진 및 bunker링시설과 호환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장기간 저장 시 화학적 분해가 일어나고, 기존 선박유와 비교해 온도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며, 미생물 번식으로 인해 연료시스템 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이번 'Project LOTUS'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선박연료유 성분 표준인 ISO 8217 개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임. 또한, IMO CII 규정 및 FuelEU Maritime 규제 이행 차원에서 바이오연료 사용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 최근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세에 따라 친환경 선박 대체연료의 적용이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과정에서 현행 ISO 8217:2017 표준은 다양한 선박연료유의 물리·화학적 기준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남.
- ▶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ISO 8217:2024는 바이오선박유에 대한 성분 표준 기준을 포함할 예정이며, 2024년 하반기에 발행할 예정임.

황 대 중 전문연구원
hdaejung@imkmc.or.kr

해운기업의 ESG 규정 준수를 위한 단단한 기반 구축 필요

(출처 : Splash247, '24.5.17.)

- IMO가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많은 기업이 ESG*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해운업계는 ESG 고려사항을 '있으면 좋은 것(nice to have)'이 아닌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must have)'으로 인식하고 있음.

*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임.

- EU의 경우, 2017년부터 일부 대기업이 비재무보고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준수하고 연례보고서에 특정한 ESG 문제를 공개해야 했으나, 올해 회계연도부터는 기업 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에 따라 더 광범위한 대기업과 상장 중소기업이 ESG 연례보고서를 발간해야 함. 또한, 외국 기업도 EU 시장에서 1억 5천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 ESG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함.

▶ 영국에서는 2022년부터 일부 대기업이 연례보고서에 기후 관련 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함. 미국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 ESG 보고를 안내하고 있으며, ESG 보고를 의무화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법이 제안되기도 하였음.

- 지난 ESG 연례보고서를 통해 IMO의 205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음. 그러나, CII 규제 시행 대상과 방법이 불분명하고 인센티브 또한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D등급을 받은 선박의 입항을 항만에서 실제로 거부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A, B등급으로 산정된 선박에 대한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리 주체가 불분명함.

* CII 등급 체계: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다소 열위), E(열위)

- 투자자들은 탄소 발자국 관리, 보건안전기준 준수, 선원복지 보장 등 긍정적인 ESG 프로필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기를 선호하며, 스캔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여 평판 손상의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음. 따라서, ESG 성과는 투자 유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ESG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저배출 제품 및 연료 도입 등 재정적 부담이 따르며, 퍼스트무버는 좌초자산이 발생할 위험을 감수해야 함. 따라서, 강력한 규제뿐 아니라 퍼스트무버의 선도적 노력에 대한 가시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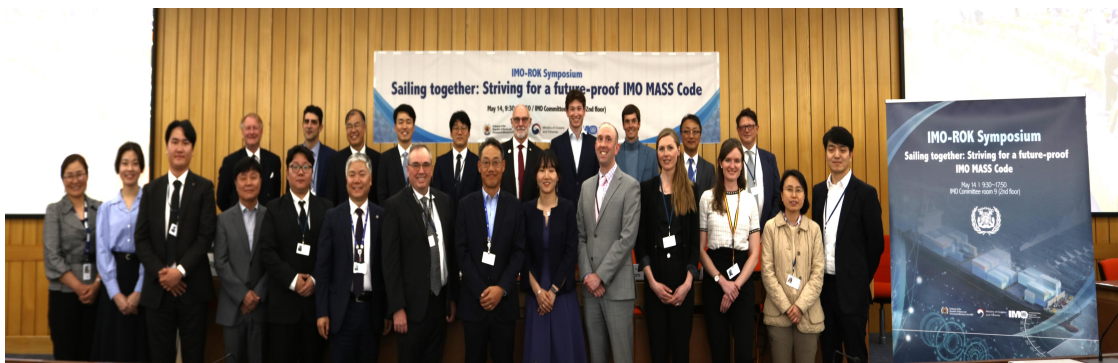
안삼엘 연구원

samela@imkmc.or.kr

제2회 IMO-ROK 자율운항선박(MASS) 심포지엄 성료

(출처: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한국해사협력센터, '24. 5. 20.)

- 제108차 MSC(해사안전위원회) 회의 전날인 5월 14일, 우리나라와 IMO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사협력센터가 주관한 「제2회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IMO-ROK MASS Symposium)」이 IMO 본부에서 성황리에 개최됨.
- ▶ ‘함께하는 항해: 미래지향적인 IMO 자율운항선박 코드 개발을 위한 노력(Sailing together: Striving for a future-proof IMO MASS Code)’을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약 270명의 각국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함.
- ▶ 우리나라는 작년 5월 30일 ‘자율운항선박 코드 개발에 대한 진전(Making headway on the IMO MASS Code)’을 주제로 제1회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음.



〈 제2회 IMO-ROK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 기념촬영, 출처:IMO 〉

- 올해 심포지엄은 3개 세션(기술, 도전, 운영)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4개의 주제 발표와 질의 응답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의 최신 기술개발 현황 및 사이버 위험 관리, 원격운항 관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공유함.
- ① **[기술 세션]** 자율운항선박 프로젝트 현황(노르웨이), 자율항해시스템 검증 절차 및 실증 시나리오 개발(KRISO), AI 기반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개발 및 실증(펜타시큐리티) 등 자율운항선박 기술발전 경과를 조명하고, 최신 연구 및 실증 사례를 발표함.
- ② **[도전 세션]** 자율운항시스템(SAS) 상용화를 위한 진전(삼성중공업), 국제적 대규모 자율운항선박 운영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영국 국립물리학연구소), 자율항해시스템(HiNAS) 상용화 경험 및 통찰(아비커스), 원격운항 조사선 운영 경험(X Ocean, Ocean Infinity) 등 조화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도전과제를 다루고, 기술 통합과 상호 운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함.
- ③ **[운영 세션]** MASS Code 개발 현황(마셜제도), 자율운항선박 원격운항 관리(벨기에 교통부), 한국의 자율운항선박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의 사이버 위험 관리(미국 해안경비대) 등 MASS 코드 개발 및 운영적 측면에서의 제언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관련 규제와 표준화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함.

- 특히 이번 심포지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해사안전위원회(MSC) 회의와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MSC에서 MASS 코드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회원국들이 최신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함.
- 심포지엄 개최사에서 윤여철 주영국대한민국대사 겸 주IMO대한민국대표부 대사는 “MASS 도입이 해양사고 감소, 선원업무 경감,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은 IMO MASS 코드 개발작업*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이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MASS 코드 개발 분야에서 기술 표준화를 선도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 IMO는 2025년 5월 비강제 코드 채택, 2026년 상반기에 경험축적기(EBP) 체계 개발, 2028년 강제 코드 개발 착수, 2030년 강제코드 채택(2032년 발효)을 목표로 논의 중임

박다영 연구원
iris23@imkmc.or.kr